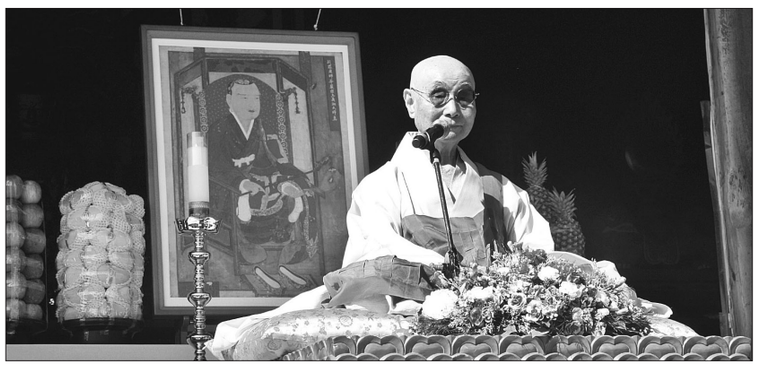


범어사 개산 1340주년 개산대재 법요식에서 방장 지유 스님이 사부대중에게 법문을 하고 있다.

## 범어사 개산대재 "금어, 화엄을 열다"

### 경전 독송 비롯해 괘불이운 · 대동한마당도

금정총림 범어사가 '금어, 화엄을 열다'를 주제로 개산조 의상대사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범어사(주지 경선)는 개산 1340주년을 맞아 개산대재 법요식 및 화합한마당을 10월 20일 경내 일대에서 봉행했다. 범어사는 법요식에 앞서 괘불이운을 거행했으며, 법요식은 △법어 △봉축사 △범어사 연혁 및 의상대사 행장소개 △봉행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방장 지유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주지 경선 스님과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요식 후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천수경 및 금강경 독송이 이어져 장관을 연출했으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에 포교활동 지원금과 군포교를 위한 초코파이를 전달해 포교를 독려했다. 아울러 신행단체가 참여하는 대동한마당이 진행돼 즐거움을 더했다. 시민들을 위한 불화그리기, 전통놀이 체험, 단주 만들기 체험, 탁본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나눔도 진행했다.

방장 지유 스님은 "금정이 무엇이고 금어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물질의 금(金)이 아니며 불생불멸의 자리가 금정이며,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금어에 비유한 것"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번뇌 망상 탁 털어버리면 맑은 마음의 빛으로 볼 것이다. 그것이 금정이고 금어"라고 법문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범어사의 역사는 창건 1340주년이라는 의미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속의 찰나"라며 "사부대중은 화엄의 바다를 유영하는 금어의 꼬리 짓이 멈추지 않도록 정진과 수행으로 호법과 도량수호에 앞장서는 역할을 다하자"고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혜철국사 유지 받드는 도량으로"

### 영천 은해사,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 봉행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0월 20일 경내 템플스테이관 육화원 앞에서 창건 1209주년 개산대재와 도 · 시민이 함께하는 프라이드 경북음악회를 개최했다

개산대재는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 스님의 육법공양 다례재에 이어 명종 5타와 삼귀의례로 시작됐다. 개산대재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관장 돈명 스님, 대구가톨릭대 정호규 교수(신부),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경상북도 · 영천시 단체장 등 3000여 명의 대중이 함께했다.〈사진〉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은 법문에서 "개산조 혜철국사께서 참다운 삶을 깨우쳐주기 위해 미타도량 은해사를 개산하셨다"며 "지역 모든 이들의 안심입명과 귀의처로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진력하고 있으니,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이 평화로워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지 돈관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뜻을 알리는 불법홍포가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며 "경전 이해와 올바른 신행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한 노력과 정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도 · 시민과 함께하는 프라이드 경북음악회와 체험마당, 만등 점등식 등 이 마련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창원 구룡사, 인재불사 요람 '우뚝'

### 10월 20일, 창건 91주년 기념법회 및 구룡축제

**창원=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구룡사는 큰 화재로 전소된 바 있고, 고속도로 공사로 사찰 위치를 옮겨야 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사람'에게 집중해 경남 일대 사찰 가운데 교육중심도량으로 우뚝 섰다. 교육도량 구룡사가 창건을 기념하는 법석을 열고, 구룡사 불자들이 주인이 되는 '구룡축제'를 개최했다.

창원 구룡사(주지 무언)는 '2018년 구룡사 창건 91주년 기념법회'를 10월 20일 법당에서 봉행했다. 기념법회에서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법문과 구룡사 주지 무언 스님의 인사말로 창건 의미를 되새겼으며, 박완수 국회의원, 백태현 시의원, 이미숙 창원시장 부인 등 내빈 및 사부대중 4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영배 스님은 중국 송나라 오조법연 선사의 법연사계(法演四戒)를 법문으로 설했다. 법연사계는 오조법연 스님이 태평사 주지를 맡게 된 제자 원오극근 스님에게 설한 내용이다. 법연사계는 "세력을 다 쓰지 말고 복을 다 받지 말라. 규범이 있어도 다 적용치 말고 비록 좋은 말일지라도 다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영배 스님은 "좋은 말을 모두 다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쉽게 여기며, 규율과 제도를 다 시행하면 사람들이 번거롭게 여긴다. 복을 다 누리면 외로워지고 권세를 다 부리면 재앙이 닥친다"며 "주지 소임뿐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마음에 새겨 지혜롭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재로 전소된 아픔 이겨내고**
**교육 · 나눔활동 펼치며 성장해**
**어린이 · 청소년 법회 활성화 등**
**"배움과 실천의 자세로 나아가"**

이어진 구룡축제에서는 각 신행단체가 직접 참여해 장학기금바자회, 단주만들기, 버스킹노래자랑, 머그컵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민을 반겼다.

구룡사는 창건 기념법회에서 매년 장학금을 조성, 지역 모범 청소년을 선정해 전달하며 교육 도량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념법회에서는 김진영(경상고2) 외 5명에게 장학금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또 2007년 개원한 불교대학은 튼튼한 교육 기반이 되어 13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했고 신도회 및 유마거사림회, 우담바라 합창단, 바라밀선다회, 바라밀 꽃꽂이회 등 각 신행단체의 동력이 됐다. 올해 5월 취임한 주지 무언 스님은 새롭게 '이지(easy) 참선반'을 운영해 교학뿐 아니라 선정의 세계로 대중을 쉽게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포교성과다. 어린이불교학교와 반야청소년법회를 통해 올해 수계를 받은 수가 역대 최다인 60여 명에 달했다. 구룡사는 8년 동안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열고 있으며 현재 80여 명의 학생들이 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창원 구룡사가 '2018년 구룡사 창건 91주년 기념법회'를 10월 20일 법당에서 봉행했다. 구룡사는 화재전소 등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중심도량으로 우뚝 섰다.

주지 무언 스님은 "구룡사 도량은 불교대학을 비롯해 어린이 및 청소년 법회로 새로운 세대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을 향해 배움과 실천의 자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창원 포교당 구룡사는 1927년 구하 스님이 도심포교 전법도량이자 항일구국운동 거점지로 영남지역 포교당 14곳 가운데 하나로 창건했다. 구룡사는 이후 도심포교를 위한 교육활동 및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쳐 지역 내 모범 사찰로 평가받고 있다.

## 익산 삼불암 수행환경 파괴 우려

### 인근에 농약공장 입주 예정
### 소음과 괴소문에 피해 가중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 전수교육도량인 익산 삼불암 인근에 대규모 농약새산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행환경 침해가 예상된다.

익산시와 농협케미컬은 삼불암 바로 옆 110,270㎡(약 33,000평) 부지에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화학농약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3년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심각한 공해와 소음 등이 삼불암에 피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삼불암은 인근에 가동 중인 한약재 공장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더욱이 지역 언론들이 삼불암 측에서 거액의 돈을 요구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삼불암과 신도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이 정헌율 익산시장 등 관계자를 만나 입장을 전달하는 모습.

이에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를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은 10월 24일 삼불암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성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불암 가람수호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익산 제3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은 삼불암은 10년 전 공단조성당시 6,700만원 상당의 토지보상을 제안 받았다. 하지만 삼불암 인근에는 소음과 공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전자부품회사가 입주할 예정이며, 삼불암의 수행환경을 보장한다는 익산시의 설명을 듣고 현재의 도량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가 당초 약속을 뒤집은 채 농약공장 유치하고 입주를 확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삼불암 측 설명이다.

삼불암 주지 심월 스님은 "익산시는 삼불암 주변에 환경적 피해가 없는 업체의 입주를 약속했으나 이를 어겼다"며 "바로 옆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도 참고 견뎌왔으나 농약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익산시청을 찾아 정헌율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삼불암의 입장을 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진성 스님은 "삼불암은 태고종 전북종무원과 영산작법보존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찰"이라며 "대책위는 현재 삼불암이 처해있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익산시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은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니 삼불암 도량이 규모가 있는 사찰이고 도량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익산시, 농협케미컬, 삼불암이 서로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